

#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의 산과적 지식정도에 관한 일 조사 연구

李 宜 子

위생간호 전문학교

## = 목 차 =

- I.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A. 조사의 대상
- B. 조사 기간
- C. 조사 방법
- D. 대상자의 정의
- III. 조사 결과
- IV. 총괄 및 고안
- V. 결 론
- 참 고 문 헌
- 영 문 초 록

국민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국민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전문직 간호원은 임부들에게 산전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식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간호 계획과 교육을 함이 중요한 임무이다.

임부 간호 교육을 함에 있어서 먼저 목적설정을 한 후에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sup>5</sup>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환자들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교육적 배경과 그리고 출산 경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목적이 임산부에 따라서 다르게 됨으로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간호원은 효율적인 교육의 결과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임산부들의 산과적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보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산과 간호 영역에 공헌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I.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임부가 병원에 내원하면 첫 단계로서 산전관리의 의사와 간호원에 의하여 받게된다. 산전관리란 임부에게 임신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의학적인 관리와 간호를 하는것<sup>1,2</sup>으로써 모자보건 사업의 목적으로 산전 관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머니와 아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에 있다.<sup>3</sup> 즉 모성 사망율과 신생아 사망율의 감소가 목적인바<sup>4</sup> 이는 곧 한나라

## II. 조사 대상 및 방법

### A. 조사 대상

서울 S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찰실을 방문한 임부 218명과 산과 병동에 입원하였던 산모 167명 전체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B. 조사 기간

1973년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자료를

1) V. Broadribb & C. Corliss, Maternal child nursing, J.B. Lippincott Co., Phila., Toronto, 1973, p.31.

2)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2, p.81.

3) 이경식,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의 공중 보건학적 문제점, 대한간호, Vol.10, No.4, 1971, p.19.

4) 윤영숙, 산전간호 결과에 대한 관찰, 간호학회지, Vol.2, No.1, 1971, p.131.

5) 전산초, 교육과 상담, 대한간호, Vol.10 No.4, 1971, p.15.

수집하였다.

**C. 조사 방법**

조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방법은 본 연구자와 수간호원(산과 간호경력 10년 이상) 및 훈련된 졸업 간호원 2명이 임신부에게 설문지를 배부한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고 문의 사항은 잘 설명 이해시켜 답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얻어진 자료의 정리는 조사 항목별로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D. 대상자의 정의**

임부 : S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내원한 사람.  
산부 : 산후 1일이 지나 기동이 자유로운 정상 산모.

**Ⅲ. 조사 결과**

**1. 일반적 배경**

**1) 연령**

표 1에 나타남과 같이 첫 순위는 26~30세가 193명(50.1%) 다음이 21~25세로 119명(30.9%) 31~35세가 65명(16.9%)의 순위였다.

**2) 교육 정도**

**표 1) 조사 대상자의 연령**

연 령	실 수	%
20세 이하	2	0.5
21—25세	119	30.9
26—30세	193	50.1
31—35세	65	16.9
36—40세	4	1.1
41—45세	2	0.5
계	385	100.00

**표 2) 교육 정도**

학 력	실 수	%
국문 해득	3	0.8
국 졸	11	2.8
중 졸	48	12.5
고 졸	179	46.5
대 졸	144	37.4
계	385	100.00

**표 3) 부부의 직업별 분포**

종 별	남 편		부 인	
	실 수	%	실 수	%
가 정 주 부	—	—	319	82.9
관 리 직	98	25.5	39	10.2
사 무 직	86	22.3	9	2.3
판 매 업	102	26.5	9	2.3
전 문 기 술 직	67	17.5	9	2.3
농 업	8	2.0	—	—
기 능 공 및 단 순 노 동 자	17	4.4	—	—
무 직	7	1.8	—	—
계	385	100.00	385	100.00

**표 4) 임신 경력**

임신 횟수	1회	2	3	4	5	6	7	8	9	10회 이상	계
실수	141	83	75	48	19	11	3	2	0	3	385
%	36.6	21.6	19.5	12.5	4.9	2.8	0.8	0.5	0	0.8	100.00

표 2에 나타남과 같이 고졸이 179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졸로 144명(37.4%), 중졸 48명(12.5%), 국졸 11명(2.8%), 국문해득 3명(0.8%)의 순위였으며 80%이상이 고등 교육을 받은 임신부로서 교육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경제 상태**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로는 직업을 가진 임신부는 66명으로 17.1%에 해당하며 관리직 39명(10.2%), 사무직 9명(2.3%), 판매업 9명(2.3%), 전문기술직 9명(2.3%)이었고 319명(82.9%)이 가정주부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 남편의 직업을 보면 판매업이 102명(26.5%), 관리직 98명(25.5%), 사무직 86명(22.3%), 전문기술직 67명(17.5%)이고 그의 농업 8명(2%), 기능공 및 단순 노동자 17명(4.4%), 무직 7명(1.8%)이었다(표 3).

**4) 임신 경력**

임신 횟수 1회인 경우가 141명(36.6%), 2회가 83명(21.6%), 3회가 75명(19.5%)의 순위로 나타났다(표 4).

**5) 분만 경력**

분만 경험이 없는 부인이 146명(37.9%), 분만횟수 1회가 116명(30.1%), 2회 78명(20.3%) 순위였다(표 5).

표 5) 분 만 경 력

분만횟수	0회	1	2	3	4	5	6	7	계
실 수	146	116	78	36	7	1	0	1	385
%	37.9	30.1	20.3	9.3	1.8	0.3	0	0.3	100.00

2. 임신부의 산파적 지식 수준

1) 임신 증상

임신 증상은 「무월경이다」가 271명(70.4%), 「오심과 구토」가 92명(23.9%), 「복부가 커져서」 4명(1.0%), 「피부변화」 6명(1.6%), 「자주 소변을 보아서」 5(1.3%), 「무응답」 7명(1.8%)으로 나타났다(표 6).

2) 입덧 처리

입덧이 있을때의 처리에 관한 지식을 보면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가 242명(62.9%), 「일어나기전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59명(15.3%), 「약을 먹는다」 26명(6.8%), 「모른다」 40명(10.3%), 기타(입덧없었음) 18명(4.7%)으로 나타났다(표 7).

표 6) 임 신 증 상

임 신 증 상	실 수	%
무월경이다	271	70.4
오심과 구토	92	23.9
복부가 커짐	4	1.0
피부변화(유방, 얼굴)	6	1.6
자주 소변봄	5	1.3
무응답	7	1.8
계	385	100.00

3) 애기의 성별이 결정되는 시기

「애기의 성별은 임신시에 결정된다」로 옳게 아는 임신부는 157명(40.8%)이고 「임신 3,4개월 또는 분만직전에 성별이 결정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임신부가 144명(37.4%)이며 「모른다」가 84명(21.8%)이었다. 이들을 교육 정도별로 보면 대졸인 경우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52.1%, 고졸 54.7%, 중졸 87.

5%, 국졸이하 92.9%로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4) 태아의 위치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있다」가 297명(77.1%)으로 수위를 차지하며 「머리를 위로하고 있다」 46명(12%), 「모름」 37명(9.6%), 「무응답」 5명(1.3%)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산 경력별로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초임부는 106명(72.6%), 초산부 80명(69.0%), 경산부는 111명(90.2%)이고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는 초임부

표 7) 입 덧 처 리

입 덧 처 리	실 수	%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	242	62.9
일어나기전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59	15.3
약을 먹는다	26	6.8
모르겠다	40	10.3
기타(입덧없었음)	18	4.7
계	385	100.00

는 40명(27.4%), 초산부 36명(31.0%), 경산부 12명(9.8%)으로 나타났다(표 9).

5) 임신중 영양 섭취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고루 섭취한다」가 282명(73.2%)로 수위를 차지하고 「평상시와 같이 먹는다」 64명(16.6%), 「입에 맞는 음식만 먹는다」 38명(9.9%), 「잘 모른다」는 1명(0.3%)로 나타났다.

6) 임신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증상은

「하혈」(296명, 36.2%)이 1위, 「부종」(176명, 21.5%) 2위, 「계속적인 복통」(123명, 15.1%) 3위, 「경련」(72명, 8.8%) 4위, 「눈이 잘 안보임」 (53명, 6.5%)로 5위, 「모름」(52명, 6.4%)이 6위, 「두통」(45명, 5.5%)이 7위로 나타났다(표 11).

7) 임신중 하혈에 관한 처리

「즉시 의사를 방문한다」 334명 (86.7%), 「무시해 버린다」 1명(0.3%), 「기록했다가 다음 진찰시 보고한

표 8) 애기의 성별이 결정되는 시기

결정시기	교육정도	대		고		중		국졸이하		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정답(임신될 때)		69	47.9	81	45.3	6	12.5	1	7.1	157	40.8
오답(임신 3,4개월)		56	38.9	65	36.3	19	39.6	4	28.6	144	37.4
모른다		19	13.2	33	18.4	23	47.9	9	6.43	84	21.8
계		144	100.00	179	100.00	48	100.00	14	100.00	385	100.00

표 9) 태아의 자세

출산경력 수 %	초임부		초산부		경산부		계	
	수	%	수	%	수	%	수	%
태아의자세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있다	106	72.6	80	69.0	111	90.2	297	77.1
머리를 위로 하고 있다	16	11.0	23	19.8	7	5.7	46	12.0
모른다	20	13.6	12	10.3	5	4.1	37	9.6
무응답	4	2.8	1	0.9	—	—	—5	1.3
계	146	100.00	116	100.00	123	100.00	385	100.00

초임부 : 분만 경험이 없는 임부는 다 초임부로 취급

표 10) 임신중 영양 섭취

임신중 영양섭취	실 수	%
골고루 섭취한다	282	73.2
입에맞는 음식만 먹는다	38	9.9
평상시와 같이 먹는다	64	16.6
잘 모른다	1	0.3
계	385	100.00

다」 18명(4.7%), 「몇을때까지 침상에서 안정한다」 13명(3.4%), 「무응답」이 19명(4.9%)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와 같이 대부분(86.7%)의 임신부들이 즉시 의 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옮겨 알고 있었다(표 12).

8) 임신중 주의해야할 사항

「심한 운동」이 (288명, 28.9%) 수위를 차지하고 「여 행」(257명, 25.8%) 2위, 「임신 초기와 말기의 부부관 계」(218명, 21.9%) 3위, 「흡연」(115명, 11.5%) 4위

표 11) 임신중 위험한 증상

내 용	실 수	%
하 혈	296	36.2
부 중	176	21.5
계속적인 복통	123	15.1
경련	72	8.8
눈이 잘 안보임	53	6.5
모른다	52	6.4
두통	45	5.5
계	817	100.00

(한사람이 하나 이상 대답)

「변비증」(87명, 8.7%) 5위, 「모른다」(15명, 1.6%) 6위, 「가사를 돌보는 일」(11명, 1.1%)로 7위이었다 (표 13).

표 12) 임신중 하혈

내 용	수	%
즉시 의사를 방문한다	334	86.7
무시해 버린다	1	0.3
기록했다가 다음 진찰시 보고한다	18	4.7
몇을때까지 침상에서 안정 한다	13	3.4
무응답	19	4.9
계	385	100.00

9) 산전 진찰을 시작하는 시기

「임신 2~3개월」이 317명(82.4%)으로 가장 많고 「4~5개월」이 42명(10.9%), 「임신 6~7개월」이 9명(2.3%), 「임신 8~9개월」이 4명(1.0%), 「무응답」이 13명(3.4%)으로 대부분이(82.4%) 산전 진찰을 임신초 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옮겨 알고 있었다(표 14).

표 13) 임신중 주의할 사항

내 용	실 수	%
심한 운동	288	28.9
여행	257	25.8
부부관계(초, 말기)	218	21.9
흡연	115	11.5
변비증	87	8.7
모른다	15	1.6
가사돌보는 일	11	1.1
무응답	5	0.5
계	996	100.00

(한사람이 하나 이상 대답)

10) 진찰 횟수

「한번 받으면 된다」가 10명(2.7%), 「정기적으로 받는다」가 341명(88.5%), 「안받아도 된다」가 1명(0.2%)

「모른다」가 33명(8.6%)로 나타났다(표 15).

11) 소변, 혈액검사 및 혈압, 체중 측정에 관한 사항  
산전 진찰시 소변, 혈액 검사 및 혈압, 체중측정을 하는데 이에 관한 지식 정도를 보면 소변 검사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임산부 172명(44.7%), 잘 모르고 있는 임산부는 213명(55.3%)이고 혈액 검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344명(89.4%), 잘 모르고 있는 경우 41명(10.6%), 혈압 체중측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269명(69.9%)로 나타났으며 116명(30.1%)이 잘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표 16).

한편 출산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산 전 진 찰

진찰시작시기	실수	%
임신 2-3개월	317	82.4
임신 4-5개월	42	10.9
임신 6-7개월	9	2.3
임신 8-9개월	4	1.0
무응답	13	3.4
계	385	100.00

표 15) 진찰횟수

내용	실수	%
한번 받으면 된다	10	2.7
정기적으로 받는다	341	88.5
안 받아도 된다	1	0.2
모르겠다	33	8.6
계	385	100.00

12) 유방 관리

「필요하다」가 296명(76.9%), 「필요 없다」 14명(3.6%), 「잘모른다」 75명(19.5%)으로 비교적 임신중 유방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표 17).

표 16) 소변, 혈액검사 및 혈압, 체중 측정에 관한 사항

검사와 측정	정답		오답		계	
	수	%	수	%	수	%
소변 검사	172	44.7	213	55.3	385	100.00
혈액 검사	344	89.4	41	10.6	385	100.00
혈압체중측정	269	69.9	116	30.1	385	100.00

13) 호흡 및 근육 운동

「필요하다」 292명(75.8%), 「필요없다」 12명(3.1%), 「처음듣는 말이다」 81명(21.1%)로 나타났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임산부를 교육 정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대졸이 122명(84.7%), 고졸 133명(74.3%), 중졸 31명(64.5%) 국졸이하 6명(42.8%)로 교육 정도가 높을 수록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처음 듣는 말이다」에 있어서는 대졸 19명(13.2%), 고졸 41명(22.9%), 중졸 15명(31.1%), 국졸이하 6명(42.8%)으로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7) 유방 손질

유방 손질	실수	%
필요하다	296	76.9
필요없다	14	3.6
잘모른다	75	19.5
계	385	100.00

표 18) 호흡 및 근육운동

내용	교육 정도		대졸		고졸		중졸		국졸이하		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필요하다	122	84.7	133	74.3	31	64.5	6	42.8	292	75.8		
필요없다	3	2.1	5	2.8	2	4.4	2	4.4	12	3.1		
처음듣는다	19	13.2	41	22.9	15	31.1	6	42.8	81	21.1		
계	144	100.00	179	100.00	15	100.00	14	100.00	385	100.00		

14) 산욕(産褥) 기간

표 19에서 보는바와 같이 「3주」 55명(14.3%), 「6~8

주」 198명(51.4%), 「3개월」 87명(22.6%), 「모른다」 39명(10.1%), 「무응답」 6명(1.6%)으로 나타났다.

표 19) 산 육 기 간

산 육 기 간	실 수	%
3주	55	14.3
6-8주	198	51.4
3개월	87	22.6
모르겠다	39	10.1
무응답	6	1.6
계	385	100.00

15) 분만후 복부 상태

분만후 등골고 딱딱한 복부에 대해 189명(49.1%)이 자궁으로 올바르게 알고 있었고 196명(50.9%)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129명, 33.5%), 태반 (46명, 12.0%), 방광(14명, 3.6%), 구정물(7명, 1.8%)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상의 것을 출산 경력별로 비교했을 때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는 초임부 45명(30.8%), 초산부 59명(50.9%), 경산부 85명(69.1%)으로 분만의 경험이 적을 수록 잘못 알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표 20).

16) 초유처리에 대한 사항

「먹인다」 187명(48.3%), 「짜버린다」 167명(43.4%), 「모른다」 31명(8.3%)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육 정도 별로 보면 「초유를 먹인다」에 대해 대졸이 85명(59%), 고졸 86명(48.6%), 중졸 12명(25.0%), 국졸이하 4명(28.6%)으로 교육 정도가 높을 수록 올바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유를 짜버린다」에 대해 대졸 53명(36.8%), 고졸 75명(41.9%), 중졸 30명(62.5%), 국졸이하 9명(64.3%)으로 학력이 낮을 수록 짜버리는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1).

표 20) 분만후 복부 상태

분만후 복부 상태	출산 경력		초 임 부		초 산 부		경 산 부		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정답(자궁)	45	30.8	59	50.9	85	69.1	189	49.1		
오답(태반, 방광, 구정물)	29	19.9	19	16.4	19	15.4	67	13.4		
모르겠다	72	49.3	38	32.7	19	15.5	129	33.5		
계	146	100.00	116	100.00	123	100.00	385	100.00		

표 21) 초 유 처 리

초유처리	교육 정도		대 졸		고 졸		중 졸		국졸이하		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먹인다	85	59.0	86	48.0	12	25.0	4	28.6	187	48.3		
짜버린다	53	36.8	75	41.9	30	62.5	9	64.3	167	43.4		
모름	6	4.2	18	10.1	6	12.5	1	7.1	31	8.3		
계	144	100.00	179	100.00	48	100.00	14	100.00	385	100.00		

표 22 산육기간중 주의사항

주 의 사 항	실 수	%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	259	33.4
출혈	180	23.2
공중탕 목욕	137	17.6
바람	109	14.0
춥은 음식	63	8.1
모르겠다	22	2.8
양치질	7	0.9

(한 사람이 하나 이상 대답했음)

17) 산육기간중 주의 사항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 259명(33.4%), 「출혈」 180명(23.2%), 「공중탕 목욕」 137명(17.6%), 「바람」 109명(14.0%), 「경고한 음식」 63명(8.1%), 「양치질」 7명(0.9%), 「모른다」가 22명(2.8%)의 순위로 대개의 임산부들이 산육 기간중 주의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18) 산육기 체조(운동)

산육기 체조(운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261명(67.8%)이고 「필요없다」 35명(9.1%), 「처음듣는 말

표 23)

산 목 기 체 조

교육 정도 수 %	대		고		중		국		계	
	수	%	수	%	수	%	수	%	수	%
필요하다	120	83.3	118	65.9	21	43.8	2	14.3	261	67.8
필요없다	11	7.6	17	9.5	5	10.4	2	14.3	35	9.1
처음듣는말이다	13	9.1	44	24.6	22	45.8	10	71.4	89	23.1
계	144	100	179	100	48	100	14	100	385	100

이다」 89명(23.1%)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도와 비교해 볼때 「필요하다」에 대해 대졸 120명(83.3%), 고졸 118명(65.9%), 중졸 21명(43.8%), 국졸이하 2명(14.3%)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 필요성의 인정율이 높고 「처음 듣는말이다」에 대해 대졸 13명(9.1%), 고졸 44명(24.6%), 중졸 22명(45.8%), 국졸이하 10명(71.4%)으로 학력이 낮을 수록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이에 대한 출산 경력별 비교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Ⅳ. 총괄 및 고안

1. 산전(産前) 관리에 관한 지식 정도

임신 증상으로는 무월경이 271명(70.4%), 오심과 구토 92명(23.9%)으로 대부분 월경이 없으면 임신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신중 입덧이 있을때는 식전(食前)에 간단한 음식을 먹으므로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85명(22.1%)만이 입덧의 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고 77.9%가 그대로 두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sup>6)</sup>의 보고보다는 높은율을 보였는데 이는 표본 크기 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애기의 성별이 결정되는 시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임신부는 157명(40.8%)이었으며 228명(59.2%)이 잘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임신 3,4개월을 지적인 임신부가 많은데(136명, 35.3%) 이시기는 육안으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로 성별 결정 시기와 혼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 정도별로 보면 대졸인 경우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는 임신부가 75명(52.1

%), 고졸 98명(54.7%), 중졸 42명(87.5%), 국졸이하 13명(92.9%)으로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가임 연령층의 성별 결정시기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을 위한 계몽 및 교육시 정확하게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등교육 과정에 이 문제를 반드시 삽입하여 교육되어야겠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있다.

태아의 위치는 정상 분만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하여 297명(77.1%)이 올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분만의 경험이 없거나(40명, 27.4%) 1회인 경우(36명, 31.0%) 잘모르거나 전연 모른다고 응답한 율이 높은것을 볼 때 실제적인 분만 경험을 통하여 많이 알게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제를 출산전 교육에 포함 시키면 정상 분만을 높이고 모아(母兒) 사망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것으로 사려된다.

임신중 영양 섭취에 대하여서는 282명(73.2%)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sup>7)</sup>의 보고 82.3%보다는 약간 낮게 이<sup>8)</sup>의 보고 60%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개의 고등학교 가정과목에는 임부의 영양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받은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중 위험 증상에 대한 지식을 보면 하혈 1위, 부종 2위, 계속적인 복통 3위의 순서로 조<sup>9)</sup>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혈 1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혈이 있을때는 334명(86.7%)이 즉시 의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옳게 알고 있었다.

임신 기간중 주의 사항에 대한 지식 수준은 심한 운동이 1위, 여행, 2위, 임신초, 말기의 부부관계 3위, 흡연 4위의 순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

6) 이미라 외 2인, 임신부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Vol. 25, No.6, 1973, p.726.  
 7) 차정순, 임부의 섭생과 분만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10, No.2,1971, p.129.  
 8) 이미라 외 2인, Op. Cit., p.723.  
 9) 조원경 외 2인, 간호학생의 실습이 지역주민의 보건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Vol. 3, No.2, 1971, p.129.

났다.

이와 같이 임신중 위험 증상과 주의사항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므로 임신 합병증 예방에 있어 도시의 경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전 진찰 시작시기에 대한 지식수준을 보면 임신 2~3개월 부터가 317명(82.4%)으로 최<sup>10</sup>의 보고 63%보다는(1971년)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찰 횟수에 대해서는 341명(88.5%)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는 이<sup>11</sup>의 보고 90%, 김<sup>12</sup>의 보고 85.2%와는 일치하나 충북 군소재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sup>13</sup>의 보고는 5.8%로 대체로 도시와 농촌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점으로 미루어 산전 교육의 수준도 도시와 농촌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산전 진찰시 소변, 혈액 검사 및 혈압, 체중을 측정하는데 이는 모아(母兒)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임신부의 지식 수준을 보면 소변 검사 목적은 172명(44.7%)만이 올바르게 알고 있을 뿐 213명(55.3%)이 이 검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하여는 344명(89.4%)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높은율을 보였고 혈압, 체중측정은 269명(69.9%)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떤 임신부들은 출산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간호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서 교육시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 된다.

임신중 유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296명(76.9%)이 알고 있었는데 김<sup>14</sup>의 보고 17.9%보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지역 대상자의 교육 정도의 차이 및 저자의 경우는 병원의 필요성을 느껴 찾아온 임신부가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본다.

임부의 산전 운동(Prenatal Exercise)에 대해 Dr. J. S. Miller<sup>15</sup>는 호흡, 이완 및 근육 운동은 분만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분만 진통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진통을 감소시키고 자궁구 개대를 도우며 태아 만출시 돕는 에너지를 보존하므로 자연 분만을 용

이케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의 주기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오늘날 미국 각 병원에서는 이 산전 운동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sup>16 17</sup>

이에 대한 임신부들의 지식 수준을 보면 「필요하다」가 292명(75.8%)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필요없다」가 12명(3.1%), 「처음듣는 말이다」가 81명(21.1%)이고 교육 정도와의 비교에서는 학력이 높을 수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대졸 122명, 84.7%)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건강 및 보건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이라고 본다.

## 2. 산후(産後)에 대한 지식 정도

산욕 기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임신부는 198명(51.4%)으로 이<sup>18</sup>의 보고 50%와 비슷했고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김<sup>19</sup>의 보고 8.3%보다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큼을 나타내었다. 또한 산욕기간중 주의 사항에 관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가 1위로 이<sup>20</sup>, 김<sup>21</sup>의 보고 1위와 순위에 있어 일치됨을 나타냈고 대체로 산후 섭생(攝生)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후 산모가 가지는 걱정, 근심, 불안감은 직접, 간접으로 산후 회복과 유즙분비(乳汁分泌)에 영향을 주고있다.

분만후 등글고 딱딱한것이 복부에서 만져질때 때때로 산모들은 이로 인해 불안해하고 병적 현상이 아닌가 염려할때도 있다. 이에 대해 189명(49.1%)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196명(50.9%)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임신부의 생식 기관의 변화 및 생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됨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 경력과의 비교에서는 출산 경험이 적은 수록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1).

초유 처리는 169명(43.4%)이 짜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 김<sup>22</sup>의 보고 67.1%보다는 낮지만 초유의 중요성

10) 최연순, 임신간호 교육의 일 실험 방법의 효과 측정, 간호학회지, Vol.8, No.1, 1971, p.224.

11) 이미라 외 2인, Op. Cit., p.723.

12) 김명숙, 일부도시 혼기여성들의 임신 위생에 관한 지식의 조사, 대한간호, Vol.8, No.1, 1969, p.15.

13) 김영자, 일부농촌 부인의 가정분만 실태 조사, 대한간호, Vol.13, No.1, 1974, p.80.

14) 김모임 외 2인, 보건간호 실습 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학회지, Vol.1, No.1, 1970, p.9.

15) Miller, J.S., Childbirth, a manual for Pregnancy and Delivery, New York, Atheneum Publishers, 1963.

16) Broadribb-Corliss, Maternal-Child Nursing, Lippincott Co., Philadelphia. Toronto, 1973, p.93.

17) Bleier, Maternity Nursing, W.B.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Toronto, 1971, pp.77-89.

18) 이미라 외 2인, Op. Cit., p.724.

19) 김명숙, 가정분만 실태 조사, 대한간호, Vol.11, No.2, 1972, p.53.

20) 이미라 외 2인, Op. Cit., p.725.

21) 김모임 외 2인, Op. Cit., p.9.

22) 김모임 외 2인, Op. Cit., p.9.



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교육 정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교육 정도가 높을 수록 정답율이 높았다(표 22).

산모의 산후 운동에 대해 Bookmiller와 Bowen은“대부분의 의사들은 산후 운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처음에 산모들은 몸이 아프고 피곤함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나 운동의 이점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되면 더 열심을 내어 배우고자 한다”<sup>23</sup>고 했다. 산후 운동의 이점은 임신으로 인해 이완된 복부 및 다른 조직들의 신속한 복구를 촉진하고 순환이 잘되게 함으로 혈전증을 방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시킨다.<sup>24, 25, 26</sup>

이에 대한 임신부의 지식 정도를 교육 정도별로 보면 대졸 120명(83.3%), 고졸 118명(65.9%), 중졸 21명(43.8%), 국졸이하 2명(14.3%)으로 학력이 높을 수록 운동이(Exercise) 필요하다는 대답을한 임신부들이 많았고 이에 비해 처음듣는다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 수록 많아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 V. 결 론

임산부들의 산과적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보건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산과간호영역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져 1973년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S병원에서 산전 산후간호를 받은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산과적인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중 대부분(97.9%)이 21~35세의 출산력이 왕성한 연령층의 임신부로 최소 연령 18세, 최고연령 44세였다. 임신 횟수는 1~3회가 77.7%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임신횟수 10회가 2명, 13회가 1명이었는데 2회까지의 분만 경험자는 88.3%였다. 또한 83.9%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주부(82.9%)로 직업을 가진 경우는 적었(17.1%)다.

경제 상태(남편의 직업)는 판매업 26.5%, 관리직 25.5%, 사무직 22.3%로 대부분이 중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다.

2. 임신이 된 증상으로는 무월경이 70.4%, 오심과 구토 23.9%, 피부변화 1.6%의 순위였다.

3. 입덧 처리에 대하여는 77.9%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4. 애기의 성별 결정 시기에 대하여는 59.2%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다.

5. 태아의 위치는 「머리를 아래로하고 있다」가 77.1%, 「머리를 위로하고 있다」가 12.0%, 「모른다」 10.9%로 나타났으며 분만 경험이 많을 수록 옳게 알고 있었다.

6. 73.2%가 임신중에는 영양 섭취를 끝고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7. 임신중 위험한 증상으로는 하혈 1위, 부종 2위, 계속적인 복통 3위의 순으로 하혈이 있을때는 86.7%가 즉시 의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기간중 주의 사항으로는 심한 운동 1위, 여행 2위, 임신초. 말기의 부부관계가 3위로 나타났다.

8. 산전 진찰을 시작하는 시기로는 임신 2,3개월 부터가 82.4%이었고 진찰 횟수는 88.5%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9. 소변 검사를 하는 목적은 44.7%, 혈액검사의 목적은 89.4%, 혈압, 체중측정 목적에 대하여는 69.9%가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10. 76.9%가 임신중 유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1. 분만을 위한 산전 운동에 대하여 75.8%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그 필요성을 더 지적했다.

12. 산욕기간에 대하여는 51.4%가 올바르게 알고 있었고 이 기간중 주의 사항으로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가 1위로 나타났다.

13. 분만후 등골과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복부 상태에 대해 49.1%가 자궁으로 옳게 알고 있었다.

14. 분만후 초유 처리에 대해 애기에게 먹인다가 48.3%, 짜버린다 43.4%, 모른다 8.3%의 순(順)였다

15. 산욕기 운동은 필요하다가 67.8%, 필요없다 9.1%, 처음듣는 말이다. 23.1%로 나타났다.

## 제 언

본 조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어머니교실에서 어머니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원과 간호학생들에게 산전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게하도록 교육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머니교실을 이용하여 교육 받은 임신부들에게

23) Bookmiller, Bowen. The Textbook of Obstetrics and Obstetric Nursing, W.B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1969, p.274.

24) Bookmiller 의 1인, Op.Cit., p.274.

25) Constance Lerch, Maternity Nursing, C.V. MosbyCo., Saint Louis, 1970, p.216.

26) Broadribb-Corliss, Op.Cit., p.219.

어느 정도의 교육 내용을 납득하였는지를 계속적으로  
개개인에게 평가를 받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3. 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교육한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단계가 마련  
되고 준비하도록 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명숙, 일부도시 혼기여성들의 임신 위생에 관한 지  
식의 조사, 대한간호, Vol.10, No.1, 1969.  
김모일 외 2인, 보건간호 실습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학회지, Vol.1, No.1, 1970.  
김영자, 일부농촌 부인의 가정분만 실태조사, 대한간호,  
Vol.13, No.1, 1974.  
김옥실, 보건간호학, 서울, 수문사, 1963.  
윤영숙, 산전간호 결과에 대한 고찰, 간호학회지, Vol.  
2, No.1, 1971.  
이경식, 모자 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의 공중 보건학적  
문제점, 대한간호, Vol.10, No.4, 1971.  
이미라 외 2인, 임신부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Vol.25, No.6, 1973.  
전산초, 교육과 상담, 대한간호, Vol.10, No.4, 1971.

조원정 외 2인, 간호학생 실습이 지역주민 보건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Vol.3, No.2,  
1973.

차정순, 임부의 섭생과 분만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  
호, Vol.10, No.2, 1971.

최연순, 임상간호 교육의 일 실천방법의 효과측정, 간  
호학회지, Vol.2, No.1, 1971.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2.

Bleier, I.J., Maternity Nursing, W.B.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Toronto, 1971.

Bookmiller, M.M., Bowen, G.L., Carpenter, D.,  
The Textbook of Obstetrics and Obstetric Nursing,  
W.B.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1967.

Broadribb, V., Corliss, C., Maternal-Child Nursing,  
Lippincott Co., Philadelphia. Toronto, 1973.

Constance, L.C., Maternity Nursing, C.V. Mosby  
Co., Saint Louis, 1970.

Fitzpatric, E., Mastroianni, L., Reeder, S.R.,  
Maternity Nursing, Lippincott Co., Philadelphia.  
Toronto, 1971.

Miller, J.S., Childbirth, a manual for Pregnancy  
and Delivery, New York, Atheneum Publishers.,  
1963.

\*Abstract\*

## A STUDY TO DETERMINE THE LEVEL OF OBSTETRIC KNOWLEDGE OF PREGNANT WOMEN AND POSTPARTUM MOTHERS

SUN JA LEE

Professional School of Nursing, Seoul Adventist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obstetric knowledge of pregnant women and postpartum mothers, and to contribute the data to community health teaching program as well as maternity nursing. 385 pregnant women and postpartum mothers visited at or admitted to Seoul Adventist Hospital were sampl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97.9% of the subjects were between the age of 21 to 35, most of them (82.9%) were housewives with high school education and with a middle class family background.
2. The first symptoms of pregnancy were amenorrhea (70.4%), nausea & vomiting (23.9%), change of skin color (1.6%).
3. 77.9% of the subjects did not know how to deal with morning sickness.
4. 52.9% did not know when the sex determination of the fetus occurs.
5. Concerning the fetus position; 77.1% of them believed it lies head down. head up (12.0%), and not knowing (10.9%).
6. 73.2% recognized the need for a well balanced food during pregnancy.
7. As to the dangerous symptoms during pregnancy; vaginal bleeding was considered the 1st, edema, the 2nd, continuous abdominal pain, the 3rd. 82% of them would confer with physician in case of vaginal bleeding.  
As to the type of activities restricted by pregnancy; hard exercise was considered first, travel the second, and coitus during 1st and last trimester of pregnancy the 3rd.
8. 82.4% of them visited antenatal clinic at the second or third month of amenorrhea and 88.5% realized the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imperative.
9. The purpose of urine test was recognized correctly by 44.7%, blood test; 89.4%, B.P. and weight check; 69.9%.
10. The need of breast care during pregnancy was recognized by 76.9% of the subject.
11. 75.8% realized that prenatal exercise was needed. The higher the education the better the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it before delivery.
12. The concept of postpartum period was understood correctly by 54.4%.
13. The state of uterus after delivery was understood correctly by 49.1% only.
14.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olostrum; 48.3% knew it was to feed infants, and it was to squeeze and discard 43.4%.
15. Dealing with postpartum exercise; 67.8% answered it was needed, 9.1% not needed, not heard about 23.1%.